

# 제 시간에 연주하는 음악

## 적절한 양의 시간으로 음악을 연주하기

글 에르완 리샤 Erwan Richard

타고난 감각으로 인해 박자와 루바토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음악가들은 음악적 시기(timing)와 연계된 특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모차르트는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적이 있다. “음악에서 가장 기본이며,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박자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가 언급한 박자의 의미는 음악에 걸 맞는 템포를 고르고, 작곡가의 의도대로 정확한 리듬을 지키며, 자연스러운 아고릭(agogic, 기계적인 빠르기가 아닌 템포에 의한 속도법) 내에서 프레이즈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지휘자 카를로스 클라이버(Carlos Kleiber)와 피아니스트 그리고리 소콜로프(Grigory Sokolov)처럼 박자를 완벽에 가깝게 숙달한 거장들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놀라운 해석력을 보여준다.

어떤 이는 음악을 ‘정해진 양의 시간에 놓인 각기 다른 음의 배열’

이라고 묘사하기도 한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작곡가들은 음악 기보의 첫 시작부터 음조 뿐 아니라, 시간적 길이와 속도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 템포와 리듬은 악곡의 타이밍을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 심지어, 미터표시법은 음악기보에서 개발되었고, (가장 오래된 악보는 시리아에서 J. C.(Jesus Christ) 1400년 이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작곡가들은 계속된 노력으로 이러한 음악적기보법을 더욱 정하게 만들고 있다.

보통 지금의 우리가 통용하는 악보는 음악을 마디와 박에 따라 조직하고 원래의 박을 (거의 무한하게) 세분화하여 나눈다. 이러한 시간조직체계는 순수하게 수학적이다. 그리고 작곡가들은 두 가지를 필수 요소로 새기며 점차적으로 이 기법을 고안해냈다. : 연주자에게 분명한 시간적 지시사항을 줄 것, 그리고 갈수록 더 정교해진 리듬을 기록할 방법을 찾을 것.



음악가가 정확한 리듬으로 연주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내재된 리듬과 규칙적인 박에 대한 감각을 가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내재된 메트로놈'이 타고나지만, 이것은 꼭 천부적 재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는 (훈련으로) 발전될 수 있다.

처음 악보를 보고 연주를 시작할 때 쉬운 부분은 빠르게 연주하고 어려운 부분에서 느려지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다. 또한 (연습할 때의 단조로운 음색일 때) 어떠한 템포도 없는 'no tempo'로 그저 음과 음을 연이어 연주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우리가 연습하는 대부분의 시간동안, 우리는 억양, 음색과 테크닉에 집중하지만, 우리가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리듬까지 신경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모든 음악가들이 일정 템포를 가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습관들은 위험하다.

연주 시작 이전에, 내면에서 본인이 원하는 템포의 박을 분명히 느끼는 것은 꼭 필요한 준비 과정이다. 가끔은 악보의 맨 처음부터가 아니더라도, 템포를 익히기 쉬운 부분을 따로 골라 '속으로 노래 부르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쉬운 방법일 수 있다. 템포를 결정하는 것은 섬세한 작업이고, (allegro, largo, andante, modér … 와 같은) 작곡가의 첫 지시사항, 음악가의 감정, 사고방식과 연결 되는 특징들 (piu mosso, con moto, giocoso…), 그리고 곡이 가진 기술적 난이도를 바탕으로 템포가 결정 되어야 한다. 손가락이 템포에 맞춰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호흡 조절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심장 박동 수는 점차 빨라지며, 호흡을 편안히 할 수 없게 된다. 호흡을 깊고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템포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든다. 종종 메트로놈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학생들을 만난다. 이들은 메트로놈을 좋은 음악에 방해가 되는 냉정한 기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메트로놈을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하면, 다양한 리듬 문제를 해결하는 밑을 수 있는 친구를 만들 수 있고, 많은 양의 연습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오히려 메트로놈을 꺼려하는 것은 본인의 무능함과 동시에 일어난다. : 만일 당신이 메트로놈을 싫어한다면, 메트로놈은 당신에게 "나를 이전보다도 더 자주 사용해야만 할 텐데." 라고 말할 것이다.

연습의 제일 첫 단계에서 메트로놈의 사용함으로써 정확한 리듬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로운 연주 전 도달 할 수 있는 첫 단계이다. 세분화된 박으로 메트로놈을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느린 악장에서 32개로 나눌 수 있다.) 점차적으로 세분화되는 단위를 들여나갈 수 있다.(16, 8, 4개로 나누거나 가능하다면 한 마디에 하나의 박으로 시도할 수 있다.) 메트로놈을 사용해서 offbeat(강세가 없는 박)에 강세가 오도록 조절하면 좀 더 수준 높은 연습을 할 수 있다.

발로 박자를 세는 것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데, 특히 템포가 느릴 때는 더 그렇다. 발은 거의 손가락을 따르기 때문에, 시계추가 움직이듯이 오른발과 왼발을 교대로 움직이는 것이 차라리 더 안정적이다.

리듬이 어려운 패턴을 마주했을 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박이 어떻게 분해되는지 이해하고 분석해보자. 당신의 본능에 의존하지 말 것! 박을 세분화하는 것은 제 시간에 정확히 연주 가능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바흐가 높게 평가한 시칠리아나 리듬은 16개로 세분화해야 한다. : 셋잇단음표의 8분 음표를 나눠서 8개의 셋잇단음표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장식음은 음악적 프레이즈의 리듬을 쉽게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식음을 제외하고 연주하는 것은 음악의 구조를 정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흔하면서 지휘자들이 종종 하는 - 음악가가 뜻하지 않게 템포에 변화를 주는 것 같은 여러 원인 중 하나는 - 음악가가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다 : 통상적으로 어려운 부분(passage)은 필연적으로 더 빨라질 것이다. 악보를 읽는 동안은, 두려움을 피하고 홍분하지 말자. 대체로 빠른 부분(passage)은 종종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느리다. 악센트가 붙은 음이 너무 일찍 나오거나, 크레센도를 하는 동안 템포가 더 빨라지는 현상들은 모두가 경험하는 현상들이다.

끊임없이 집중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모든 악기는 특정 타이밍에 대한 병적인 면이 있다 : 현악기군이 연주할 때, 활의 길이를 배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충분하지 못한 활 길이는 남은 음을 불분명하고 더욱 빠르게 연주하게 만든다.) 또한 관악기 연주자는 호흡을 하는 동안 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한 곡을 규칙적 템포로 완벽하게 연주해야하거나, 템포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위와 같이, 곡의 템포와 내재된 리듬은 스스로가 조절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멘델스존의 스케르초나 대다수의 바로크 곡들과 같은 몇몇 음악은 정확한 메트로놈 같은 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끌로드 드뷔시는 "메트로놈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침까지만 지속되는 저 장미를 같이 메트로놈 표시는 한 마디에만 적용되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러한 다채로운 표현은 우리에게 드뷔시의 <La Mer 바다>에 대한 템포를 알려준다. : 비록 그가 아주 명확하게 리듬 기보를 썼어도, 템포는 절대 융통성 없이 엄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동시에, 템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루바토는 항상 자각을 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음악적 타이밍에 대한 감각을 가지는 것은, 음악적 기술 중 가장 높게 평가되는 것 중 하나이다. ♪